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장연구 현황 분석

Analysis of the Trends in the Field Studi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정재영(Jae-Young Chung)*
박진희(Jin-Hee Park)**

< 목 차 >

I. 서론	IV. 문헌정보학 현장연구 현황 및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현장연구의 변화추이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연구자별 분포
II. 도서관 관련 현장연구의 필요성	3. 주제별 분석
III. 문헌정보학 연구 현황	4. 도서관 유형별 분석
1. 문헌정보학 연구의 변화추이	5. 연구비 지원 현황
2. 학술지별 전채수록 논문 분석	V. 결론 및 제언

초 록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최근 10년간 발표된 연구논문 2,165건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현장연구의 현황 즉, 양적 변화, 주제, 연구자, 연구비 지원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논문 중 현장연구는 691건으로 3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현장연구의 주제를 도서관 유형별로 구분한 결과 공공도서관이 246편(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도서관이 238편(34.4%), 학교도서관 141편(20.4%), 그리고 기타 66편(9.6%)으로 조사되었다. 문헌정보학 관련 주제별로 구분한 결과는 도서관운영 관련 연구가 328편(4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봉사, 정보시스템 및 전자도서관, 이용자교육, 독서교육 순으로 조사되었다. 저자별 구분의 경우 교수가 329편(47.6%)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사서, 교수/사서, 교수/학생, 강사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비지원 여부의 경우 대학으로 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145편으로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논문 195편 중 74.4%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학술진흥재단 27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9편, 교육인적자원부 4편 순으로 조사되었다.

키워드: 문헌정보학, 현장연구, 연구방법론, 연구주제, 연구동향, 내용분석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field study has been done in the aspects of the quantity of the research works, research subjects, researchers, the organizations which supported the research expenses and so on by going through the 2,165 research papers of the leading scholarly journal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ublished in the recent 10 years. The study shows that the number of the field studies is 691 and it comprises 31.9% of the total research papers. Classifying the field studies by the types of the subject libraries, the ones about the public libraries comprise the largest proportion(35.6%) of the total papers by the number of 246. Classifying the field works by the topics, the studies on the library administration comprise the largest proportion(47.5%) of the total field studies by the number of 328. They are followed by the research on the information services, information systems and digital libraries, and finally the reading education in the listed order. Classifying the field works by the authors, the professors have written the most papers whose number is 329 and which comprise 47.6% of the total research papers. When it comes to supporting the research expenses, 145 studies were supported by the universities, and they comprise the definitely largest proportion(74.4%) of the total 195 articles supported from some organizations.

Keyword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Field Studies, Field Research, Research Methodology, Research Subject, Research Trend, Content Analysis

*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관리운영팀장(jaeyoung@sogang.ac.kr) (제1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july74@naver.com) (공동저자)

• 접수일: 2011년 5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1년 6월 5일 • 최종심사일: 2011년 6월 28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든 학문은 이론적 연구와 실험적 적용을 중요시하며, 이 둘의 조화를 통해 발전한다. 문헌정보학의 경우에도 다른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각종 도서관 및 정보센터, 기록보존소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학문보다 현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의 방향성과 목적에 있어 현장의 적용가능성을 중요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다양한 IT 기술의 적용과 정보환경 및 이용자들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서관 현장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되는 해결책이 국내 도서관 현실과 맞지 않아 대안 및 문제해결 방안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 예로 주제전문사서 제도의 도입 및 주제전문서비스 제공의 경우, 국내 문헌정보학의 태생적 한계이긴 하지만 정보환경과 이용자의 변화에 대한 대안이자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 그리고 사서의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이나 해결방안은 선진사례의 소개나 도입에 그치고 있어 도서관 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서관의 구조조정 및 합리화란 명분하에 업무의 많은 부분을 아웃소싱 또는 다운사이징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서관과 사서의 위상 및 업무의 전문성이 위협받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학술적이고 이론을 기반으로 한 대응 논리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의 제시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보의 중요성과 이를 다루는 직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은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변화된 환경에 대비하지 못한 도서관 현장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를 예측하고 적용가능성이 높은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며 적절한 대응논리와 문제해결을 제시해야 할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장과 학계가 서로 소통하고 대안을 위해 협력해 왔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문헌정보학 연구가 현장의 문제와 이슈만을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이론과 학술, 그리고 향후 학문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연구자의 역할이며 책임이다. 그러나, 문헌정보학이 도서관 및 정보센터를 기초로 한 현장학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시되는 이론이나 해결방안이 도서관 현장에 활용되지 않는다면 분명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관련 연구들이 현장사서들에게 읽혀지거나 지식화되어 문제 해결의 단서 및 변화의 대응방안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연구의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문헌정보학 연구가 새로운 이론의 창출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응용학문이라는 학문의 성격상

현장에서의 적용 및 검증의 단계를 거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자들과 도서관 현장의 협력을 통한 정책의 마련과 현장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국민의 문화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과 연계를 통해 평생학습을 지향하고 미래의 도서관 이용자를 양산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 설립 및 환경개선, 그리고 사서교사 채용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와 함께, 학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도서관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대학도서관에 관한 연구도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문헌정보학에서의 현장연구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발표되고 있는 연구 논문 중 현장연구의 수치적 현황과 함께 내용 분석을 통해 연구자별, 주제별, 도서관유형별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현장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발전적인 대안과 제시를 통해 향후 도서관 현장연구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관련 연구 중 현장연구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도서관 현장과 문헌정보학계의 소통과 공동의 연구를 통해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약 10년간의 문헌정보학 관련 4개 학회지 즉,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논문 중 현장연구의 연구동향 및 주제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현장연구란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즉, 구체적인 도서관 유형을 명시하고, 도서관 현상을 기초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도서관 현장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로 정의한다.

연구논문에 대한 주제분석은 오세훈의 문헌정보학 문헌 분석도구¹⁾와 김용근의 문헌정보학 수집자료 주제분류표²⁾ 그리고 D. Koufogiannakis, L. Slater & E. Crumly의 연구³⁾를 기초로 본 연

1) 오세훈,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및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2권 제3호(2005), pp.379-408.

2) 김용근, "대학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2호(2003), p.302.

3) D. Koufogiannakis, Linda Slater, Ellen Crumley, "A Content Analysis of Librarianship Research,"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Vol.30, No.3(2004), pp.227-239.

구의 목적인 현장연구의 주제에 맞게 재구분하였다.

이 연구의 수행에 따른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분석의 경우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복수의 주제 또는 다른 두 개 이상의 도서관현장과 관련된 논문의 경우, 보다 비중이 높은 주제 또는 도서관 유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주제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한 단점이 있다.

둘째, 논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현장이 언급되지 않은 연구가 제외됨으로써 실제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임에도 도서관 현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현장연구가 일부 누락되었을 수 있다.

II. 도서관 관련 현장연구의 필요성

현장연구란 교육학을 비롯한 사회과학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현장을 중심으로한 실천활동과 연구의 결합을 의미한다. 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를 의미하며 현장을 개선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지식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아이디어를 실제 속에서 시험해 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철기⁴⁾는 현장연구에 관해 현장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이며, 이론의 실제적인 적용 효과 또는 연구결과를 현장 전반에 적용하고 일반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로, 현장연구라고 해서 현장 인력에 의해 연구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다.

배장오⁵⁾의 주장을 토대로 현장연구의 특성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연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문제를 취급한다. 즉, 현장의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주로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둔다.

둘째, 현장이 중심이 된다. 현장연구는 현장 인력이 주체가 되거나 학자, 교수, 연구원 등과의 협동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셋째, 현장연구는 과학적인 사고과정에 의해 미지의 사실이나 문제의 해결방안을 탐구하고 발견해야 한다. 즉, 현장연구는 사실문제를 취급하고 과학적인 사고과정과 더불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현장연구는 새롭게 발견한 사실과 방법에 의거하여 현상들의 관계를 기술하고 설명하며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현상간의 관계를 의미있게 설명하거나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철기, 현장연구 쉽게하기(서울 : 휴먼스, 2003), p.19.

5) 배장오, 현장연구방법(고양 : 서현사, 2008), pp.18-19.

다섯째, 새로 발견한 사실이나 문제의 해결방안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현장연구는 현장에서의 실천과 개선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일 때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현장연구의 특성을 토대로 문헌정보학에서의 현장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성 있는 대안제시가 가능하다.

도서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현장연구는 도서관 현장 및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현실상황에 가장 적절하고 적용가능한 대안제시를 할 수 있다.

둘째, 도서관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즉, 도서관 현장을 기반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현장인력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어 도서관 내부의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셋째, 학계와 현장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즉, 현장과 학계의 협력은 학계의 실천성과 현장의 학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학계와 도서관 현장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내 도서관의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이 2009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7,787개의 도서관(도서관 포함)이 있으며, 서울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서관 설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1> 도서관 통계6)

도서관유형		도서관 수	
국립도서관		3	
공공도서관(어린이 포함)		703(어린이도서관 62개관 포함)	
작은도서관(문고)		3,324	
장애인도서관		37	
병영도서관		1,502	
교도소도서관		46	
대학도서관	국공립	87	651
	사립	356	
	전문	206	
	각종	2	
학교도서관	초등학교	5,718	10,937
	중학교	3,005	
	고등학교	2,214	
전문도서관		584	
합 계		17,787	

* 2009.12 기준

6)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도서관협회, 2010).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공공도서관이 703개관, 대학도서관이 651개관, 그리고 학교도서관이 무려 10,937개관이며, 작은 도서관의 경우도 3,324개관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치만으로는 문헌정보학 연구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확보되어가고 있으며, 그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인 성장과는 반대로 도서관내 다양한 업무의 아웃소싱과 전문적 업무분야의 축소,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의 배치에 대한 문제 등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할 사서의 채용과 지위, 그리고 위상 및 역할은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질적 운영 및 서비스의 재고를 위해 책임감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몇몇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현장과의 소통 및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현장성 높은 연구를 통한 도서관 현장과의 소통과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⁷⁾

또한,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논문의 분석을 통해 문헌정보학 연구 동향 및 특성, 그리고 흐름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어왔으며,⁸⁾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문헌정보학 연구의 현실 적합성과 실천성을 주장한 연구⁹⁾도 있다.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석·박사 학위논문 및 4개 학회지(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서지학연구)의 도서관 현장 활용도를 조사한 연구¹⁰⁾에 따르면, 도서관 관리자 및 실무자의 절반 이상인 52.5%가 문헌정보학 연구논문을 거의 또는 전혀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읽히는 논문 주제로는 도서관전산화(21.7%), 도서관봉사 및 정보봉사

7) 한국도서관·정보학회에서는 2010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조직으로서의 학회의 목적은 학술적 소통의 활성화를 통해 학문의 이론적 토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현장의 성장과 발전에 실천적으로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응용 학문에 기반한 학회의 경우, 실천 현장과의 연계와 소통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학회의 선배님들이 우리 학문의 실천 현장인 도서관과 정보유통기관의 발전을 위한 실사구시적인 연구를 장려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 중략 -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는 현장과의 소통을 중시했던 선학들의 해안을 계승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서관계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와 장애를 찾아내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학회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년 4회 발간하는 학회지의 편집은 물론이고 년 2회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주제 또한 학문의 실천 현장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며, 현장 사서를 위한 워크숍 또한 강화하여 사서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중략 - ‘학회와 현장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은 향후 2년 동안 우리 학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 이하 생략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장의 2010년 새해 인사문 중에서 발췌)

8)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로는 문경진(1993), 정동열(1993), 김길자(1995), 조찬식(1999), 변자영(2000), 이명희(2002), 손정표(2003) 등이 있다.
9) 김영기,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실적합성과 실천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4권, 제2호(2000), pp.191-209. ; 양재한, “우리 문헌정보학의 실천성 확보를 위한 반성적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4호(2000), pp.91-110.
10) 조인숙, “문헌정보학분야 연구성과의 활용실태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12권, 제 2호(1995), pp.193-212.

(17.4%), 정보검색(13.7%)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대하는 연구 주제로는 전산화, 정보봉사, 경영 등 세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계의 연구가 도서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거나 활용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장의 주 관심사는 도서관 전산화, 정보봉사, 그리고 도서관 운영으로 나타났는데, 전산화의 경우 1990년대 중반 도서관의 전산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도서관 관련 단체가 발행하는 매체와 세미나, 그리고 워크숍 등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분석을 통해 현장의 당면한 문제점과 현장사서들의 관심사를 분석한 연구¹¹⁾에 따르면, 대학도서관경영이 109건(33.0%), 정보시스템 75건(22.6%), 문헌정보학 일반 54건(16.3%), 자료조직 36건(10.9%), 참고정보서비스 35건(10.6%), 정보처리 19건(5.7%)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대학도서관 경영 및 조직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한 도서관 운영에 관심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헌정보학연구의 현실적합성과 적실성에 대해 우려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즉, 한국도서관 현실을 간과하고 외국에서 개발된 이론을 근거로 우리 도서관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 우리의 도서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한국 도서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생산하고 있다¹²⁾는 지적도 있다.

조인숙의 연구¹³⁾에 따르면, 현장사서들은 문헌정보학 관련 연구에 대해 '이론과 실제 업무사이에 많은 거리가 있으며',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문제는 한국적인데 접근하는 방법이나 해결책은 너무 외국적이고 선진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성진은 조사대상 논문 중 한국의 도서관 발전과 관련된 논문은 45.3%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또는 별로 관련이 없는 논문이 전체의 54.7%를 차지한다고 주장하였다.¹⁴⁾

활용도가 높은 연구논문의 종류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39.9%가 우리나라 도서관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문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도서관 현장의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보와 지식에 관한 이론적 연구보다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더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40여 년 동안 발표된 글들이 동료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현장 사서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으며, 그들의 현장업무 개선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 연구자의 체험과 글이 걸도는, 말과 글이 따로 노는 이중적인 지적 높음이 계속되고 있다.

11) 김용근, 전계논문, pp.297-315.

12) 김용근, "한국 사서직에 대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6), p.12.

13) 조인숙, 전계논문, p.205.

14) 최성진, "광복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자료집(1995), p.7.

15) 조인숙, 전계논문, p.201.

이러한 길도는 구조에서 발표된 글들은 도서관 현장을 변혁시키는 데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장과 학계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⁶⁾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의 지적과 관련 연구를 통해 문헌정보학에 있어 현장연구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현장의 상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으며, 현장과의 교류를 통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논문의 양적인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살펴볼 때 많은 변화나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도서관계의 상황을 해결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현장의 협력을 통해 현장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Ⅲ. 문헌정보학 연구 현황

1. 문헌정보학 연구의 변화추이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회지 즉,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대한 조사 결과 지난 10년 동안 총 2,166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연도별 논문발표 통계

논문수 \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합계
논문수	154	174	188	205	219	217	240	243	246	280	2,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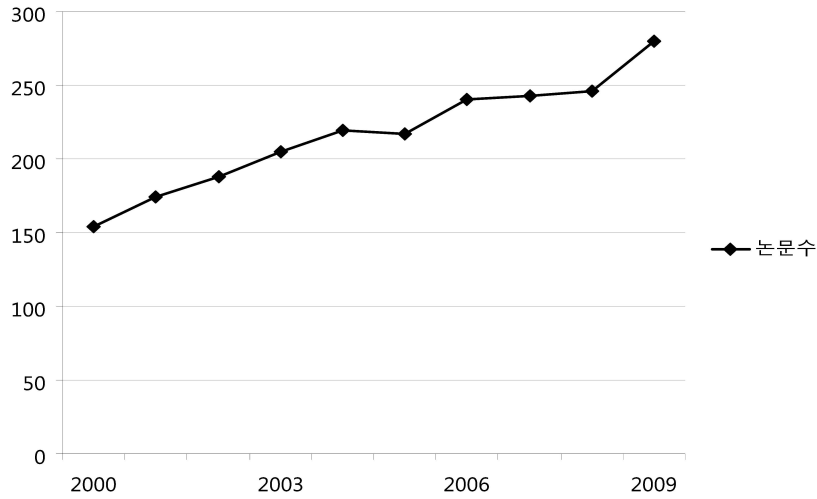
이와 같은 수치는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0년간을 조사한 조인숙의 연구¹⁷⁾와 비교할 때 총 462편에서 2,166편으로 468% 증가한 것으로 괄목할만한 양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연도별로는 〈그림 1〉과 같이 2000년 154편이 발표된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6) 김정근, “한국문헌정보학의 위상정립과 교수협의회 역할: 우리 학문의 실천성 문제와 관련하여,” 『1996년도 한국문헌정보학 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발표요지』 1996년 6월 21일 -22일: 유성호텔, p.10.

17) 조인숙, 전개논문, p.198.

조인숙의 경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그리고 서지학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1〉 발표논문의 변화추이

2009년의 경우 발표논문의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발행주기가 반년간에서 계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005년의 경우 2004년에 비해 총 발표논문수가 약간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시기를 제외하고 모든 년도에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지의 수가 늘어난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학문 영역의 확장과 발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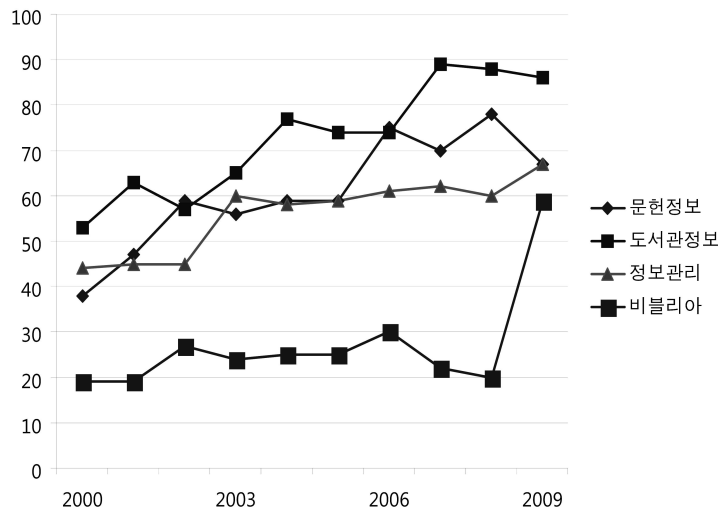
2. 학술지별 전체수록 논문 분석

학술지별로 발표논문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3〉, 〈그림 2〉와 같이 모든 학회지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3〉 학회지별 발표논문 현황

학회지명 \ 년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합계
문헌정보	38	47	59	56	59	59	75	70	78	67	608
도서관·정보	53	63	57	65	77	74	74	89	88	86	726
정보관리	44	45	45	60	58	59	61	62	60	67	561
비블리아	19	19	27	24	25	25	30	22	20	59	270
전체	154	174	188	205	219	217	240	243	246	280	2,166

학회지별로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726편이 발표되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총 608편이 발표되었으며, 정보관리학회지의 경우 561편이, 그리고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는 270편이 발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 학회지별 발표논문 변화추이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경우 2003년과 2007년, 그리고 2009년에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경우 2002년도와 2005년도에 약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관리학회지의 경우, 2003년도에 60편으로 전년도 45편에 비해 대폭 증가한 이후 큰 변화없이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경우 2007년 이후 발표논문수가 소폭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2009년 발행 주기를 반년간에서 계간으로 변경함에 따라 논문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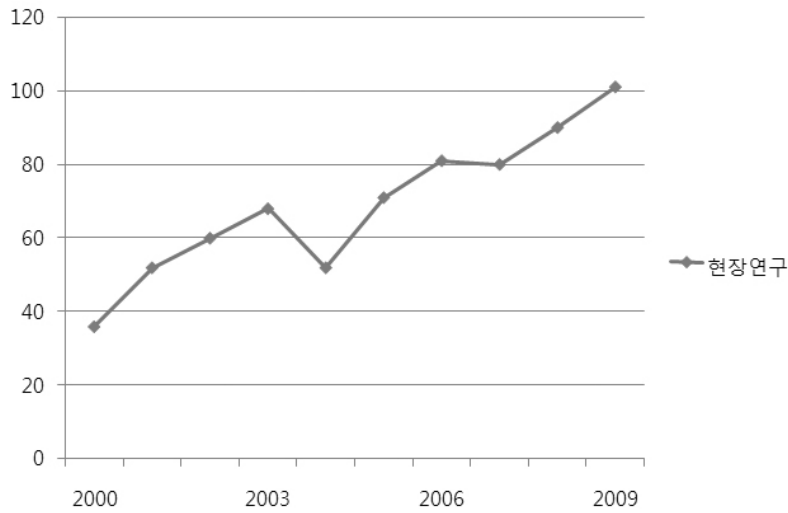
IV. 문헌정보학 현장연구 현황 및 분석

1. 현장연구의 변화추이

연도별로 현장연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4〉, 〈그림 3〉과 같다.

〈표 4〉 연도별 현장연구 발표 통계

논문수 \ 년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합계
논문수	36	52	60	68	52	71	81	80	90	101	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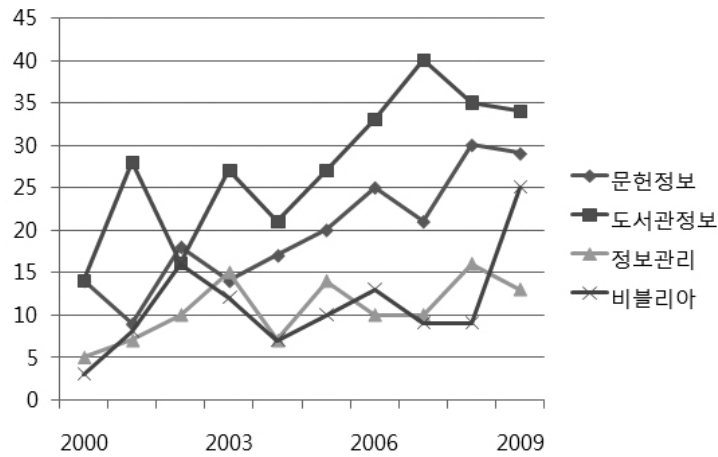
〈그림 3〉 문헌정보학 현장연구의 연도별 변화 추이

〈그림 3〉과 같이 2004년도에 총 52편으로 전년도 68편에 비해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문헌정보학 연구 수의 증가와 비례하여 현장연구 또한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헌정보학 관련 발표논문 중 현장연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전체 논문 중 현장연구는 총 691편으로 전체논문 2,166편 중 3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학회지별 현장연구 발표 현황

학회지명 \ 년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합계
문헌정보	14	9	18	14	17	20	25	21	30	29	197
도서관·정보	14	28	16	27	21	27	33	40	35	34	275
정보관리	5	7	10	15	7	14	10	10	16	13	107
비블리아	3	8	16	12	7	10	13	9	9	25	112
전 체	36	52	60	68	52	71	81	80	90	101	691



〈그림 4〉 학회지별 현장연구 변화 추이

학회지별로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275편으로 가장 많은 현장연구가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발표논문수 대비 현장연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총 논문 270편 중 112편으로 41.5%를 차지해 전체 논문 대비 가장 많은 현장연구가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9%,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4%, 정보관리학회지가 19.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많은 연구들이 특정 유형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도서관 현장에 도움이 되는 연구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회지별 현장연구 비율의 차이는 각각의 학회에서 표방하는 운영 목표 및 심사제도의 유연성 및 개방성을 포함한 방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성진¹⁸⁾은 1991년부터 1992년까지 ‘도서관학’과 ‘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64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도서관봉사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가 45.3%에 지나지 않으며, 별로 관련되지 않은 연구와 전혀 관련되지 않은 연구가 전체의 54.7%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과거의 현장연계 및 관련연구 부족의 문제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자별 분포

현장연구에 대한 연구자별 분포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18) 최성진,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 창사이춘회교수 정년기념논총(서울 : 경인문화사, 1993), pp.100-101.

〈표 6〉 현장연구의 연구자별 분포

	교수	사서	강사	학생	연구원	공 동					기타	계
						교수/ 사서	교수/ 교수	교수/ 학생	교수/ 강사	교수/ 연구원		
문헌정보	89	18	17	4	3	20	8	13	14	5	6	197
도서관·정보	154	34	13	4	9	25	13	10	7	4	2	275
정보관리	34	14	5	3	4	11	5	18	6	3	4	107
비블리아	52	16	5	2	1	16	6	7	4	3		112
계	329	82	40	13	17	72	32	48	31	15	12	691
비율	47.6	11.9	5.8	1.9	2.5	10.4	4.6	6.9	4.5	2.1	1.7	100
순위	1	2	5	10	8	3	6	4	7	9	11	

〈표 6〉과 같이 현장연구 중 1인 연구는 총 481건으로 전체 현장연구 중 6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의 신분별로는 교수가 47.6%로 가장 많았으며, 사서 11.9%, 교수와 사서의 공동연구 10.4%, 교수와 학생의 공동연구 6.9%, 강사 5.8%, 그리고 교수와 교수의 공동연구가 4.6%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교수에 의한 연구 비율이 높은 것은 일차적으로는 조사대상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이기 때문이지만, 도서관 현장인력이 학회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문헌정보학관련 학회지 논문 597건을 조사한 이명희의 연구의 경우에도 교수에 의한 연구가 461건(77.2%)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사와 사서가 각각 43건(7.2%)으로 같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석·박사 학생이 17건(2.84%), 그리고 기타 23건(3.85%)으로 나타났다.¹⁹⁾

현장사서에 의한 연구가 사서 또는 사서와 교수의 협력에 의한 연구를 합해 22.3%에 그치고 있는 점은 문헌정보학이 현장 중심 학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론적 연구와 그에 따른 지식이 실무에 응용되지 못하고 연구를 위한 연구, 또는 현장과 괴리되어 현장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연구에 그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와 현장 사서들은 이론적 연구와 이의 현장에 접목 또는 응용의 상호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하여 찾아내고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²⁰⁾

따라서, 현장의 문제가 학문적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현장인력과 연구인력의 협력을 통해 연구되고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9) 이명희,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2), p.297.

20) 이명희, 상계논문, p.293.

3. 주제별 분석

논문의 주제별 구분은 오세훈의 문헌정보학 문헌 분석도구²¹⁾와 김용근의 문헌정보학 수집자료 주제분류표²²⁾ Koufogiannakis와 Slater 그리고 Crumly의 연구²³⁾에서의 주제구분 방법을 기초로 재구분하였다.

즉, 문헌정보학 관련 현장연구를 도서관운영, 장서개발, 자료조직(분류, 편목), 정보시스템, 전자도서관(검색), 정보봉사, 이용자교육, 독서교육, 독서치료, 전문(직)성, 저작권 등 10개의 주제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타로 구분하였다.

현장연구를 주제별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현장연구의 주제 분석

주제 학회지	도서관 운영	장서 개발	자료 조직	정보시스템/ 전자도서관	정보 봉사	이용자 교육	독서 교육	독서 치료	전문 직성	저작권	기타	계
문헌정보	95	8	6	24	35	15	6	3	2	2	1	197
도서관·정보	146	6	9	28	41	16	16	5	1	3	4	275
정보관리	43	2	3	31	14	11			1	2		107
비블리아	44	5	7	13	17	11	6	4	4		1	112
계	328	21	25	96	107	53	28	12	8	7	6	691
비율	47.5	3.0	3.6	13.9	15.5	7.7	4.1	1.7	1.1	1.0	0.9	100
순위	1	7	6	3	2	4	5	8	9	10	11	

조사결과, <표 7>과 같이 도서관운영에 관한 연구가 328건으로 전체 현장연구의 4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봉사 15.5%, 정보시스템 및 전자도서관 13.9%, 이용자교육 7.7%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발간되는 기관지 및 발표논문(국립대학도서관보 160건, 사대도협회지 49건, 사대도협 세미나 자료 65건, 워크숍 자료 57건 등) 총 331건을 분석한 김용근²⁴⁾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데, 현장사서들의 논문 및 발표의 경우에도 도서

21) 오세훈은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를 '기록관리학', '도서관 건물 및 설비', '도서관운영', '도서관체제', '문헌정보학 기초', '서지학', '자료조직', '정보학', '참고정보봉사', '출판'으로 구분하였다.

오세훈,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및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2권, 제3호(2005), p.382.

22) 김용근은 문헌정보학 연구논문의 주제를 '자료조직', '도서관경영', '참고정보서비스', '문헌정보학 일반', '정보처리', '정보시스템', '서지학'으로 구분하였다.

김용근, "대학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2호(2003), p.301.

23) Koufogiannakis 등은 문헌정보학 연구논문의 주제를 '참고봉사/질문', '이용자교육', '장서', '경영', '정보접근 및 검색', '마케팅/홍보'로 구분하였다.

D. Koufogiannakis, Linda Slater, Ellen Crumley, "A Content Analysis of Librarianship Research,"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Vol.30, No.3(2004), p.228.

관운영에 관한 주제가 가장 많았으며, 정보시스템, 문헌정보학 일반, 자료조직 순으로 조사되어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가장 높은 관심과 현안이 도서관운영인 것을 알 수 있다.

국외의 경우 91개 학술지 논문 2664건 중 연구적 성격을 띤 807건 논문을 조사한 연구²⁵⁾에 따르면, 정보접근 및 검색(314/807) 분야의 연구가 3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서관리, 경영, 교육, 그리고 참고서비스 순인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의 조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도서관 유형별 분석

현장연구의 주제를 도서관 유형별로 구분한 결과 다음 <표 8>과 같이 공공도서관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 현장연구의 도서관 유형별 주제구분

주제 \ 학회지	문헌정보	도서관·정보	정보관리	비블리아	합계	비율(%)
대학도서관	59	94	56	29	238	34.4
공공도서관	84	90	25	47	246	35.6
학교도서관	35	71	9	26	141	20.4
기타	19	20	17	10	66	9.6
합계	197	275	107	112	691	100

즉, 현장연구 총 691편 중 공공도서관 관련 연구가 246편(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도서관 관련 연구 238편(34.4%), 학교도서관 141편(20.4%)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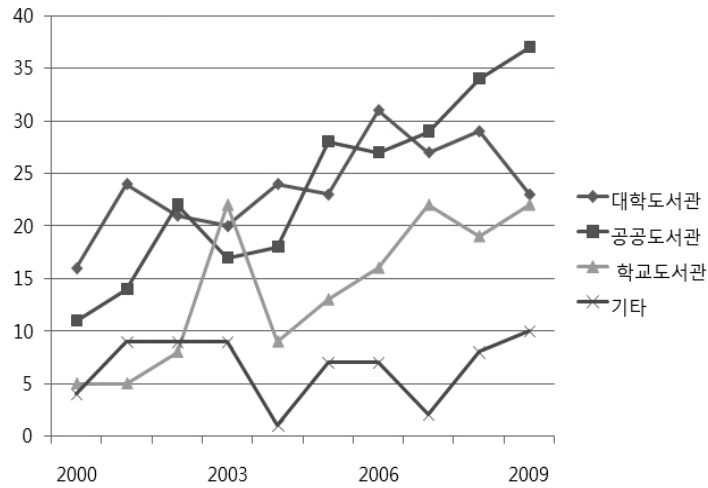
도서관 유형별 주제구분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5>와 같이 전체주제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유형별 비교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학도서관 관련 연구가 많았지만 2007년 이후에는 공공도서관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발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2006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은 2003년 폭발적인 증가를 보인 경우를 제외하고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김용근, 전계논문, p.301.

25) Denise Koufogiannakis, Linda Slater, "A Content Analysis of Librarianship Research,"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Vol.30, No.3(2004), pp.227-239.



〈그림 5〉 도서관 유형별 현장연구의 변화추이

학교도서관 관련 연구가 2003년 증가한 것은 2003년부터 추진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영향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최근 공공도서관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것 또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통한 주민의 문화적 욕구 해결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 관련 연구를 주제별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대학도서관 관련 현장연구의 주제구분

주제 학회지	도서관 운영	장서 개발	자료 조직	정보시스템 및 전자도서관	정보 봉사	이용자 교육	독서 교육	독서 치료	전문 직성	저작권	기타	계
문헌정보	21	5	2	6	15	6			2	2	0	59
도서관·정보	44	5	3	13	19	6			1	2	1	94
정보관리	17	2	1	18	9	7			1	1	0	56
비블리아	8	1	0	5	6	5			4	0	0	29
계	90	13	6	42	49	24			8	5	1	238
비율(%)	37.8	5.5	2.5	17.6	20.6	10.1			3.4	2.1	0.4	100.0
순위	1	5	7	3	2	4			6	8	9	

〈표 9〉와 같이 대학도서관 관련 논문 238편 중 학술지별로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94편,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59편, 그리고 정보관리학회지 56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29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별로는 도서관운영 관련 논문이 90편(37.8%) 발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봉사(20.6%), 정보시스템 및 전자도서관(17.6%), 이용자교육(10.1%), 장서개발(5.5%), 전문직성(3.4%)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다른 유형의 도서관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는 '전문직성'에 관한 연구가 8편(3.4%) 발표되어 다른 유형의 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정보봉사 및 이용자교육에 대한 연구 비율이 다른 도서관 유형의 연구보다 높은 것은 주제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봉사와 이용자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관련 연구를 주제별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공공도서관 관련 현장연구의 주제구분

주제 학회지	도서관 운영	장서 개발	자료 조직	정보시스템 및 전자도서관	정보 봉사	이용자 교육	독서 교육	독서 치료	전문 직성	저작권	기타	계
문헌정보	42	3	3	11	17	1	4	2			1	84
도서관·정보	45	1	4	7	17	3	8	2			3	90
정보관리	16		1	4	4							25
비블리아	23	2	2	5	8	1	3	2			1	47
계	126	6	10	27	46	5	15	6			5	246
비율(%)	51.2	2.4	4.1	11.0	18.8	2.0	6.1	2.4			2.0	100.0
순위	1	6	5	3	2	8	4	6			8	

<표 10>과 같이 공공도서관 관련 현장연구 246편 중 학술지별로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90편,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84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47편, 그리고 정보관리학회지에 25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별로는 도서관운영이 가장 많은 126편(51.2%)이 발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봉사(18.8%), 정보시스템 및 전자도서관(11.0%), 독서교육(6.1%), 자료조직(4.1%), 독서치료(2.4%), 장서개발(2.4%) 순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다른 유형의 도서관 연구에 비해 독서교육과 독서치료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관련 연구를 주제별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학교도서관 관련 현장연구의 주제구분

주제 학회지	도서관 운영	장서 개발	자료 조직	정보시스템 및 전자도서관	정보 봉사	이용자 교육	독서 교육	독서 치료	전문 직성	저작권	기타	계
문헌정보	21		1	3	1	7	1	1		0		35
도서관·정보	40		2	7	3	7	8	3		1		71
정보관리	1		1	3	0	4	0	0		0		9
비블리아	10		3	1	2	5	3	2		0		26
계	72		7	14	6	23	12	6		1		141
비율(%)	51.0		5.0	9.9	4.3	16.3	8.5	4.3		0.7		100.0
순위	1		5	3	6	2	4	6		8		

〈표 11〉과 같이 학교도서관 관련 논문 141편 중 학술지별로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71편,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35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26편, 그리고 정보관리학회지에 9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별로는 도서관운영이 가장 많은 72편(51.0%)이 발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이용자교육(16.3%), 정보시스템 및 전자도서관(9.9%), 독서교육(8.5%), 자료조직(5.0%), 독서치료(4.3%), 정보봉사(4.3%)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도서관의 경우 다른 유형의 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자교육과 독서교육 및 독서치료 관련 연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교도서관에서 도서관활용수업과 도서관협력수업 등의 중요성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라. 기타

전문도서관, 국가도서관 및 특수도서관(병영, 교도소 등) 등이 포함된 기타도서관 관련 연구의 주제별 구분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기타도서관 관련 현장연구의 주제구분

주제 학회지	도서관 운영	장서 개발	자료 조직	정보시스템 및 전자도서관	정보 봉사	이용자 교육	독서 교육	독서 치료	전문 직성	저작권	기타	계
문헌정보	11	0	0	4	2	1	1			0		19
도서관·정보	17	0	0	1	2	0	0			0		20
정보관리	9	0	0	6	1	0	0			1		17
비블리아	3	2	2	2	1	0	0			0		10
계	40	2	2	13	6	1	1			1		66
비율(%)	60.6	3.0	3.0	19.8	9.1	1.5	1.5			1.5		100.0
순위	1	4	4	2	3	6	6			6		

〈표 12〉와 같이 기타 도서관 관련 논문 66편 중 학술지별로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20편,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19편, 정보관리학회지에 17편, 그리고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10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별로는 도서관운영이 가장 많은 40편(60.60%)이 발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시스템 및 전자도서관(19.8%), 정보봉사(9.1%), 자료조직(3.0%), 장서개발(3.0%)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수도서관 등을 포함한 기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운영 관련 연구 비율이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병영, 교도소 등 특수도서관 등의 설치 및 운영이 아직도 초기단계에 있어 해결할 이슈와 과제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5. 연구비 지원 현황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비 지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다수의 지원기관에서 다양한 연구자에게 연구비가 지원되는 것이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문헌정보학관련 현장연구의 연구비 지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표 13〉과 같이 전체 현장 연구 691편 중 195편(28.2%)만이 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연구비 지원의 기관별 현황

기관 학회지	교내	학술 진흥 재단	교육 인적 자원부	한국 교육 학술 정보원	문화 관광 부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연구 재단	한국과 학기술 정보연 구원	대학교육 협의회	한국 도서 관협 회	서울시 교육청	합계
문헌정보	44	7	1	3		1		1	1	1		59
도서관·정보	67	14	3	1	1	1	1	1				89
정보관리	14	5		5				1				25
비블리아	20	1									1	22
계	145	27	4	9	1	2	1	3	1	1	1	195
비율 (%)	74.4	13.9	2.1	4.6	0.5	1.0	0.5	1.5	0.5	0.5	0.5	100

연구비 지원 주체의 경우, 〈표 13〉과 같이 소속 대학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가 145건으로 전체 연구비지원 연구 중 7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가 27편(13.9%), 교육학술정보원 9편(4.6%), 교육인적자원부 4편(2.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현장연구를 통해 문헌정보학 연구의 활성화와 산학의 공동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교내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를 제외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관에서의 지원이 빈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지원기관의 적극적인 파악과 함께 어떤 연구분야에 지원의 우선순위를 두는지, 또한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는 연구계획서 작성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대처 및 홍보가 필요하다.²⁶⁾

또한, <표 14>와 같이 195편 중 152편이 교수에 의한 연구이며, 교수가 포함된 공동연구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연구의 96%가 교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4> 연구자별 연구비 지원 현황

연구자 학회지	연구자					공동연구					합계
	교수	사서	강사	학생 (석·박사)	연구원	교수/ 사서	교수/ 교수	교수/ 학생	교수/ 강사	교수/ 연구원, 사업자	
문헌정보	44		1		1	4	1	3	3	2	59
도서관·정보	74		2			1	5	1	5	1	89
정보관리	16	1			1	1	2	2	2		25
비블리아	18	1				1		2			22
합계	152	2	3		2	7	8	8	10	3	195

연구비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가 교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연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학계와 현장 사서들이 참여에 의한 연구 비율을 높이고, 연구자의 유형을 다양화시킴으로써 현장에 적용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보다 많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결론 및 제언

문헌정보학은 지난 50년간 학문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문헌정보학에 있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해 왔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지난 10여년 동안 다양한 이론의 적용 및 토대구축과 도서관 현실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 제안됨으로써 많은 도서관 관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최근 새로운 정보기술 및 매체의 발달과 이용자들의 정보이용행태의 변화는 사서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 및 상황의 변화 또한 도서관의 새로운 변화와 활로, 그리고 다양한 시도와 대안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에 있어 이와 같은 도서관 현장의 문제의 해결방안과 대안 제시를 위한 현장연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26) 이명희, 전계논문, p.307.

학문과 현장의 노력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현장연구의 현황 분석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급격한 상황 변화속에서 연구의 흐름과 변화를 측정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의 4개 학회지를 대상으로 10년간의 연구논문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양적 성장에 따라 현장연구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2,166건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 중 현장연구는 691편으로 3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중심학문 또는 현장기반학문이라는 표현이 다소 무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91편의 현장연구에 대한 분석결과 현장연구의 연구자별 분포의 경우 교수가 4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의 단독 또는 공동연구 비율이 22.3%로 나타나 현장연구임에도 도서관 현장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연구 비율 또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장연구의 주제분석 결과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논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과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운영에 따른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서관 유형별 주제분석의 경우 도서관 현장의 관심주제가 도서관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도서관 현장의 관심이 연구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도서관 유형별 구분의 경우 공공도서관 관련 연구가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비 지원의 경우 교내 지원 연구가 대부분(74.4%)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문헌정보학이 도서관현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학문으로서의 정체성 속에 현장의 의미가 여전히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학문의 목적이 현장의 문제해결이나 대안제시 또는 방향만을 예측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현장을 기반으로 하고 학문의 토대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연구의 비율만으로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연구의 발전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과 학계의 협력을 통한 현장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대안들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즉, 현장사서들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제도적 지원노력과 함께 산출된 연구결과의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학계와 현장의 협력 및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연계방안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현장연구의 변화추이와 현장연구의 주제 및 도서관유형별, 연구자별 분석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추후 도서관 현장과의 연관성, 즉 현장연구가 도서관 현장의 문제해결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연구주제 순위와 현장에서 요구하는 연구주제와의 관련성, 그리고 현장연구자의 분석을 통한 동향 및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